

# 지혜의 말씀

불기 2563년 11월 / 통권 465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 證道歌 (증도가)

용 상 축 답 윤 무 변  
龍象蹴踏潤無邊하고  
삼 승 오 성 개 성 오  
三乘五性皆惺悟로다.

용과 코끼리가 서로 밟으니 윤택함은 끝이없고  
삼승과 오성이 모두 밝게 깨닫네

설 산 비 니 갱 무 잡  
雪山肥膩更無雜이어  
순 출 제 호 아 상 납  
純出醍醐我常納이로다.

설산의 소는 비니꿀만 먹으니 결고 오염이 없어  
최고의 맛인 제호만을 온전히 내어주니 내가 늘 받는다네

## 시와 불교의 만남 · 2

### 생각의 터 · 4

소유물 / 윤성스님

###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 부처님의 말씀 · 11

### 알림마당 · 13

대광사 11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11월 행사계획

어린이법회 11월 활동

신증기도 안내

2019년 어른신 한마당 축제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표지그림 / 원성스님

####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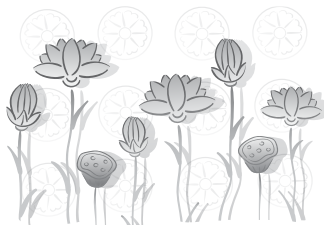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 주 간 / 이숙경

####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 소유물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하다. 이를 떼면 양치질을 위해서는 칫솔이 필요하고 밥을 먹기 위해선 밥숟과 밥그릇이 필요하고 세수하기 위해선 수건이나 비누가 꼭 필요하다. 물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우리는 생활필수품이라 한다. 생활필수품을 꼭 갖추는 것은 그 것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더러는 불편을 넘어 고통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거나 구입함에서 매우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꼭 필요한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의 구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물건을 구입하는데 대부분은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것을 산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대부분은 꼭 필요해서 구입한 게





아니라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사고 싶어서 산다. 당연 없어도 될 물건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소유한 물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꼭 필요한 물건, 2, 없어도 되는 물건, 3, 가지고 싶어서 산 물건 등이다.

방 안을 둘러보면 필요 없는 물건이 방안을 꽉 메우고 있다는 느낌이다. 없어도 되는 물건들이 방을 메우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필요 유무에 대한 성찰 없이 단지 사고 싶다는 충동만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는 증거다.

사실 나는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날 아껴주시는 분들에게서 추위나 더위를 염려하시고 생활의 불편을 염려하시어 사다주신 것이 대부분이다.

매양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방 안 구석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잡다한 물건들이 여간 나를 걱정 하게 하지 않는다. 매양 수보리존자 철저한 비움을 본받고자 하는데 늘 상 채워져만 있는 일상이 여간 부끄럽지 않다.

정말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만 소유하며 단출하게 사는 수행자다운 삶이 언제 쯤 이루어질지 사뭇 걱정이다.

“수행인은 가난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좋은 음식을 탐하는 것은 코끼리가 개 가죽을 쓰는 짓이며. 좋은 옷을 탐하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드는 격이라.”고 큰 스승께서 애써 당부하셨음을 늘 상기하고는 있지만 오늘의 내 주변은 나를 늘 부끄럽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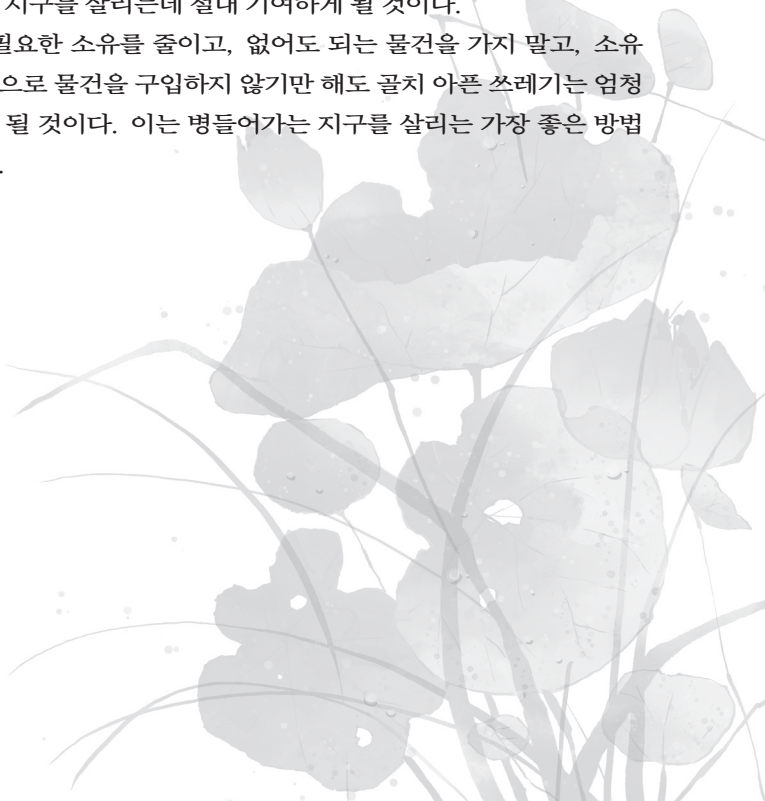
불필요한 소유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고 버리지 않아



도 될 쓰레기가 한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 날의 쓰레기 대량 생산은 지구라는 인류 공동의 생명 터전을 병들게 하는 가장 추악한 죄악이다.

먹을 만큼 준비하고, 입을 만큼 구입하고, 머무를 만큼 마련해야 한다. 석가께서 비구에게 소지품을 여섯 가지로 정해주신 그 알뜰하신 소비 절제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실천한다면 저 병들어 가는 지구를 살리는데 절대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고, 없어도 되는 물건을 가지 말고, 소유 욕만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기만 해도 골치 아픈 쓰레기는 엄청 줄게 될 것이다. 이는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부처님의 말씀

### 7. 완전한 열반

#### 3) 최후의 안식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대장장이 쥔다에게서 공양을 받으신뒤에 부처님은 흑독한 병에 걸리셨다. 병에 걸린 노구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꾸시나라의 조용한 들판, 사라나무 두 그루가 형제처럼 나란히 서 있는 곳이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이르셨다.

“아난다. 저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다오.”

부처님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붙이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우셨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삼매에 드셨다.

아난다는 슬픔에 겨워 견딜 수가 없었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신 지 25년, 그에게 부처님은 위대한 진리의 스승이기 이전에 따뜻 피가 통하는 형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늙고 병들어 최후를 향해 가시는 부처님을 보는 일은 그에게는 고통이었다. 아난다는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마음 놓고 울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 아난다를 불러온 후에 이렇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아난다여, 눈물을 거두어라. 너는 오랫동안 나에게 정성을 다하였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처럼 여래를 섬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 머지않아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들은 병석에 누운 부처님을 꼭 한번만 보이고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 아난다는 쇠약한 부처님을 염려하여 그들의 청을 물리쳤으나 부처님은 그런 아난다를 말리며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후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부처와 법과 승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물어라.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 살아 있는 동안 그대들을 위해 설명해 주리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이미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아무도 부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잠시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다 부처님은 마지막 말씀을 베풀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진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이미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아무도 부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잠시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다 부처님은 마지막 말씀을 베풀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진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그리고 나서 조용희 선정에 드신 채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다.

사라나무가 호연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니 열반에 드신 부처님 몸 위로 향기로운 꽃을 흩뿌렸다. 길에서 태어나 일평생 맨 발로 길을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르침을 베푸신 인류의 스승, 위대한 성자는 그렇게 길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이다. 이때 부처님의 세수는 80세, 성도하시고 45년이 지났다.

## 1. 초기불교의 의미와 특징

### 1) 초기불교의 의미

부처님이 깨달음을 열어 그 가르침이 직접 영향을 준 불교를 초기불교라고 한다. 그 시기는 대략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했던 시절과 부처님이 열반에 든 이후 100여년 동안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직접 감화를 주던 시기를 초기불교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불교는 그 이후 등장한 여러 가지 불교의 흐름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펴셨다. 당신의 말씀만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으셨다. 고통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가슴으로 이해하여 그들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평온을 얻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다.

불교가 일어날 무렵 인도에서는 정통 바라문교(婆羅門敎) 생생한 말씀으르 찾고자 한다면 초기불교에서 그 표준을 구해야 한다.

셋째, 초기불교에는 부처님의 인격적 감화력과 교화력이 잘 담겨 있다. 부처님의 설법방식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대기설법(對機說法)이다. 대기설법이란 부처님이 사람들의 능력과 조건에 맞게 가르침을 펴신다는 의미이다. 부처님은 그 누구보다



도 갈등과 고토. 변민이 쌓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으셨다. 그것은 부처님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투명한 지혜의 눈과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 들이는 대자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회와 울림을 주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이러한 초기불교를 근본불교, 혹은 원시불교라고 칭하기도 한다.

근본불교란, 부처님의 원음을 간직한 이 시기의 불교야말로 불교의 근본이며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나 근본이라는 표현 속에는 다른 불교는 근본이 아니라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근본이라는 말은 원리주의적 관점이 녹아들어 있어 다른 것들을 거부하는 교조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원시불교는 변형되기 이전의 원초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표현도 있지만, 제대로 발당하지 못한 시작 단계의 불교하는 뜻 또한 내포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최초기의 불교는 덜 성숙되어 있는 불교로 간주되기에 원시불교라는 말에는 어느정도 비하의 의미가 감긴 것으로 들릴수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나 부처님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던 시기의 불교를 원시불교나 근본불교가 아닌 초기불교라고 칭한다.

이 책에서는 대승불교 입장에서 초기불교시대의 부처님 원음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국가이고 대한불교조계종의 간화선 전통은 이 대승불교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 부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 12. 방기씨의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알라비 국에 있는 악갈라바 탐묘에 계셨다.
2. 마침 존자 방기씨의 스승인 니그로다 깎빠라는 장로가 그 탐묘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3. 존자 방기씨는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다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였다.

[방기씨] ‘우리의 친교사는 정말로 완전한 열반에 드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완전한 열반에 드시지 않은 것일까?’

4. 존자 방기씨는 저녁때가 되자 명상에서 깨어나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린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존자 방기씨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방기씨] “부처님이시여, 제가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이와 같이 ‘우리의 친교사는 정말로 완전한 열반에 드신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완전한 열반에 드시지 않은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5. 그리고 나서 존자 방기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더니, 다음 같은 시로써 여쭙었다.
6. [방기씨] “현세에서 모든 의혹을 끊고 위없는 지혜를 지닌 스승께 묻겠습니다. 수행승이 악갈라바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지고 명망이 높고 적멸에 들었습니다.
7. 부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그 존귀한 분에게 니그로다 깍빠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견고한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시여, 그는 당신께 귀의하고 해탈을 구해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8. 싸끼야여, 널리 보는 님이여, 저희들은 당신의 제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희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위없는 님이십니다.
9. 저희의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이시여, 그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신들 가운데 천 개의 눈을 가진 제석천처럼, 널리 보는 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10. 이 세상에서 속박은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길이고, 무지를 날개로 하고 의심을 조건으로 하지만, 여래를 만나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님은 인간들에게 으뜸가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 ❁ 대광사 11월 법회 및 행사 ❁

- ❖ 11월 11일 음력10월 보름법회
- ❖ 11월 12일 석굴암 참배 (수능기도 저녁예불참석) 오후2시 진해역
- ❖ 11월 14일 수능기도 회향
- ❖ 11월 20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 6시(대웅전)
- ❖ 11월 27일 음력11월 초하루기도 입재
- ❖ 11월 29일 초하루기도 회향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신중기도 안내

- 일 시 : 10월 28일(음력10월 초하루~10일)  
~11월 6일  
삼시예불(새벽예불-주지스님 집전)
- 동참금 : 가족축원 5만원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 고맙습니다

## 대광후원회

(9.17.~10.16.)

|             |               |               |             |
|-------------|---------------|---------------|-------------|
| 이연숙 100,000 | (주)카텍 300,000 | 원광한의원 100,000 | 유미란 50,000  |
| 정진이 10,000  | 박미애 10,000    | 정대식 20,000    | 대광사 100,000 |
| 이금재 30,000  | 이봉숙 10,000    | 이미정 50,000    | 공민진 30,000  |
| 김병문 20,000  | 유봉악 10,000    | 홍예현 50,000    | 찬불단 50,000  |
| 홍승운 20,000  | 정연수 30,000    | 이현실 10,000    | 서경스님 50,000 |
| 김경남 20,000  | 박외순 20,000    | 강 란 10,000    |             |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9년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

- 일시 :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광사 공양간
- 대상 : 여좌동, 태백동 어르신
- 문의 : ☎ 545-9595





## 11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 1. 2020학년도 신입생 원아모집 안내

#### \* '처음학교로' 이용

○ 2019년 11월 05일 우선모집접수

○ 2019년 11월 19일 일반모집접수

★자세한 입학문의는 유치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 2. 유아체력다지기 대회

○ 일시 : 11월 22일(금) 오전 11시

○ 대상 : 7세-줄넘기, 6세-홀라후프, 5세-장애물 달리기

○ 장소 : 유치원운동장

## 11월 어린인법회 활동

### 1. 11월야회법회

○ 일시 : 2019년 11월 16일(토)



# 佛紀 2564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살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신도기본교육 제19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       | 신도기본교육             | 대광불교대학                                    |
|-------|--------------------|-------------------------------------------|
| 대 상   |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 신도오계 수계자                                  |
| 교육기간  | 2020년 3월 3일~3월 25일 | 2020. 3. 31(화)~12. 9(화)<br>(1년 과정 - 2학기제) |
| 수 계 일 | 2020년 3월 28일       |                                           |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19년 8월 1일부터 ~ 2020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 강의내용

|         |                                 |
|---------|---------------------------------|
| 의 식     | 예불 및 의식(찬불가)                    |
| 예 절     | 사찰예절, 신도오계                      |
| 교 리     | 부처님의 생애, 사성제, 팔정도 등             |
| 불 교 문 화 | 법당, 탑, 탕화, 벽화, 문학, 성지순례         |
| 신 행     | 참회와 기도, 사경 보시와 자비실천, 수련회        |
| 불 교 역 사 | 인도·중국·한국 불교사, 동남아 불교사           |
| 불 교 사 상 | 중관, 유식, 화엄, 선사상 등               |
| 경 전     |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                |
| 특 강     | 사찰음식, 다도, 불교 사회복지 실천, 수련회, 성지순례 |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